

효율적인 다문화 자녀 말하기/듣기 교육을 위한 함축 의미 추론 원리에 대하여

우창현*

요약 이 글에서는 화자와 청자 간의 원활한 의사소통에 있어 화자의 숨은 의도를 추론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전제 하에 그 숨은 의도인 함축 의미를 추론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 논의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논의가 한국의 언어 문화적인 특성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외국인 그리고 다문화 가정 자녀들을 대상으로 한 한국어 말하기, 듣기 교육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보았다. 이 글에서의 논의를 정리하면, 먼저 함축 의미를 추론하기 위해 그라이스(1975)의 협력 원칙 및 네 가지 대화 격률에 대해 살펴보았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함축 의미 추론 원리’를 제시하였다.

그리고 ‘함축 의미 추론 원리’가 타당함을 구체적인 예를 통해 확인하였다. 다음으로 제시한 ‘함축 의미 추론 원리’를 네 개의 대화 격률(‘질의 격률’, ‘관련성의 격률’, ‘양의 격률’, ‘태도의 격률’)을 위반한 각각의 예에 적용하여 화자의 발화 의도인 함축 의미를 추론하는 과정에 대해 논의하였다.

논의 과정을 통해 화자의 발화 의도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합리적으로 함축 의미를 추론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었다.

주요어 다문화, 함축, 추론, 격률, 협력원칙

1. 서론

화자와 청자 간의 원활한 의사소통에 있어 화자의 숨은 의도를 어떻게 파악할 것인가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문제다. 다만 이러한 숨은 의도는 대화 맥락을 통해 찾아지게 된다. 따라서 이러한 숨은 의도 즉 함축 의미를 화맥을 통해 추론할

* 대구대, 국제한국어교육과, wuch@naver.com

수 있는 방법에 대한 연구는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특히 한국의 언어 문화적인 특성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외국인 그리고 다문화 가정 자녀들의 경우 함축 의미를 대화 맥락을 통해 자연스럽게 추론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않다. 이러한 이유로 이 글에서는 주로 다문화 가정 자녀들을 대상으로 효율적인 한국어 말하기, 듣기 교육을 위해 함축 의미를 어떻게 추론하는 것이 필요한지 그 추론 원리에 대해 알아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함축 의미는 한국어를 모국어로 사용하는 원어민들의 경우에도 추론하기 쉽지 않은 경우가 있다. 예를 들어 ‘내일 우리 만날까?’라는 질문에 ‘내일 시골에서 부모님이 올라 오셔’라고 대답할 경우 화자는 자신의 질문에 대해 정확하게 대답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이 경우 화자는 다음과 같이 크게 둘로 해석하여 반응한다. 첫째, 상대방이 자신의 질문에 대해 부정적으로 응답했다고 해석하는 경우이고, 둘째, 상대방이 자신의 질문에 정확하게 대답하지 않아 자신의 질문을 잘못 이해하고 있다고 해석하는 경우이다. 물론 이 경우 첫째와 같이 해석하는 것이 상대방의 발화 의도를 정확하게 이해한 경우라고 하겠다. 그러면 첫째처럼 해석할 수 있는 근거는 무엇이고 또 어떤 과정을 거쳐 첫째와 같이 해석하느냐 하는 것이 남은 문제가 될 수 있다. 이 글에서는 이처럼 발화 표현만 보면 상대방의 질문에 대한 대답이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발화 표현에 함축되어 있는 의미를 추론하면 상대방의 질문에 대한 대답이 될 수 있다는 전제 하에 이러한 함축 의미를 찾아가는 추론 원리에 대해 살펴보기로 한다.¹

2. 함축 의미 추론 원리

논의를 위해 먼저 그라이스(Grice, 1975)의 대화 협력 원칙에 대해 살펴보기로 한다. 그라이스는 먼저 대화 협력 원칙에 대해 ‘대화가 진행되는 단계에서 대화의 방향이나 목적에 의해 요구되는 만큼 기여하라.’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1 이러한 함축 의미 추론 방법에 대해서는 최재용(2009), 소상호(1998), 윤성규(2007), 임지원(2005) 등에서 자세하게 논의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네 가지 격률을 제시하고 있다.²

(1) 질의 격률²

- ① 거짓이라고 믿는 것은 말하지 말라.
- ② 적절한 증거가 없는 것은 말하지 말라.

(2) 양의 격률

- ① 진행되는 대화 목적을 위해 필요한 만큼만 정보를 제공하라.
- ② 필요 이상의 정보를 제공하지 말라.

(3) 관련성의 격률

관련성을 지켜라.

(4) 태도의 격률

- ① 모호성을 피하라.
- ② 중의성을 피하라.
- ③ 간결하라.
- ④ 조리있게 하라.

일반적으로 협력 원칙을 준수하면서 격률을 위반하지 않은 경우 함축 의미는 나타나지 않는다.

(5) 가. 지금 몇 시냐?

나. 지금 오후 네 시야.

(5나)는 (5가)의 질문에 대한 적절한 대답이라고 할 수 있다. 즉 (5나)의 화자는 (5

2 그라이스(1975)의 대화 협력 원칙과 관련한 논의는 이익환·권경원 역(1993: 112)을 참고하여 제시하였다.

가)의 질문에 대해 협력하겠다는 의도를 가지고 대답한 경우이고 또 네 개의 격률을 모두 준수하고 있다. 이 경우 함축 의미는 나타나지 않는다. 다만 다음과 같은 경우는 문제가 될 수 있다.

(6) 가. 지금 몇 시니?

나. 우편배달부가 방금 다녀갔어요.

다. 그래. 알았다.

(6나)는 (6가)의 질문에 대한 적절한 대답이 되지 않는다. 즉 시간을 묻는 질문에 대한 답으로는 적절하지 않다는 것이다. 이 경우 (6가)의 반응은 크게 들로 나타날 수 있다. 첫째, (6나)가 (6가)의 질문에 협력하겠다는 의도를 가지지 않고 대답한 경우라고 판단할 수 있다. 즉 (6나)를 (6가)의 시간을 묻는 질문에 대한 적절한 대답이라고 해석하지 않는 경우이다. 이 경우 대화는 더 이상 이어지지 않고 단절된다. 즉 ‘무슨 말이니? 나는 지금 몇 시인지 시간을 물었잖아?’와 같이 상대방이 협력하고 있지 않다는 사실에 대한 반응 표현이 이어지게 된다. 둘째, (6나)가 (6가)의 질문에 협력하겠다는 의도를 가지고 한 대답이라고 해석하는 경우이다. 다만 이렇게 해석하더라도 (6나)의 발화 표현만으로 보면 질문과 관련 없는 대답이어서 관련성의 격률을 위반하였다고 할 수 있다. 이 경우 발화 내용을 바탕으로 숨어 있는 화자의 의도를 파악해야 하는데 이렇게 숨어 있는 화자 의도를 찾아가기 위해서는 화자와 청자 간 공유되는 정보가 필요하다. 즉 (6나)의 ‘우편배달부가 다녀 간 사실’이 시간에 대한 답으로 해석될 수 있는 정보 공유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우편배달부가 다녀가다’가 가지는 의미 속성에 대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7) 우편배달부가 다녀가다.

① 우편물을 우체통에서 거두어 모으고, 받을 대상자에게 배달하는 사람[표준국어대사전 정의 <http://stdweb2.korean.go.kr/search/View.jsp>]이 다녀가다. → 화자와 청자가 공유하는 일반적 의미

② 항상 오후 두 시쯤 다녀가다. → 화자와 청자가 공유하는 특별한 의미

(6나)의 발화에서 ‘우편배달부가 다녀가다’는 (7)의 두 의미 모두로 해석될 수 있다. 다만 대화 맥락을 통해 추론될 수 있는 의미는 ②만 해당된다. 즉 화자의 지금 몇 시인지 시간을 묻는 질문과 상관성이 있는 어휘 의미는 ②뿐이라는 것이다. 이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함축 의미 추론 원리를 상정할 수 있다.

※ 함축 의미 추론 원리

함축 의미는 발화 표현에 대해 화자와 청자가 공유하는 정보 중 대화 맥락과의 상관성에 의해 추론된다.

즉 함축 의미를 추론하기 위해서는 먼저 발화 표현이 있고 또 해당 발화에 대해 화자와 청자가 공유하는 정보가 있어야 하며 이처럼 공유하는 여러 정보 중 대화 맥락과 상관성을 가지는 정보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다음은 함축 의미 추론 원리가 타당한지를 검증하기 위한 예다.

(8) [과출소에 자수하러 온 간첩 철진과 경찰 사이에서]

가. 철진: 저 간첩인데요. 간첩이라구요.

나. 경찰: 그래, 난 김정일이야(최재웅 2009: 111).

(8가)에서 간첩인 철진은 자신이 간첩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다. 이에 대해 만일 경찰이 협력 원칙을 준수하면서 대화 격률을 위반하지 않고 대답한 경우라면 ‘그래요? 그럼, 자수하러 오셨나요?’ 정도가 될 것이다. 그런데 (8나)에서의 경찰은 ‘그래, 난 김정일이야.’라고 대답하고 있다. 이는 질의 격률(‘거짓이라고 믿는 것은 말하지 말라.’)을 위반하고 있다. 즉 경찰은 자신이 김정일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8나)의 대답은 화자가 거짓인 줄 알면서 하는 발화가 되어 질의 격률을 위반한 경우라는 것이다. 다만 (8가)의 발화와 관련 있는 내용을 언급하고 있기 때문에 협력 원칙은 준수하는 경우라고 하겠다. 이에 따라 (8나)의 발화

가 가지는 함축 의미를 추론할 필요가 있다.

먼저 (8나)의 ‘난 김정일이다’가 가지는 의미 속성에 대해 살펴보기로 한다.

(9) 난 김정일이다.³

경찰은 2011년 사망한 북한의 지도자다. → 화자와 청자가 공유하는 발화 표현 의미(사실이 아니다.)

‘난 김정일이다’가 가지는 이러한 의미 속성에 대해서는 화자와 청자가 이미 정보를 공유하고 있다고 판단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8나)와 같이 발화한 것은 분명 사실이 아니다. 다만 이에 대해서는 경찰도 알고 있고 간접인 ‘철진’도 알고 있다. 따라서 (8나)의 발화에서는 ‘사실이 아니다’, 즉 ‘거짓말’이라는 함축 의미를 추론할 수 있다. 다시 말해 경찰은 철진의 말이 사실이 아니다라는 함축 의미를 표현하기 위해 (8나)와 같이 발화한 것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이처럼 함축 의미를 추론하는 것은 앞서 제시했던 함축 의미 추론 원리, 즉 함축 의미를 추론할 수 있는 발화 표현(난 김정일이야)이 있고 또 해당 발화에 대해 화자와 청자가 공유하는 정보(사실이 아니다)가 있어야 하며 이처럼 공유하는 정보와 대화 맥락과의 상관성을 통해 함축 의미가 해석된다는 추론 원리가 필요함을 보여준다.

3. 대화 격률 위반과 함축 의미 추론⁴

이 장에서는 2장에서 논의했던 ‘함축 의미 추론 원리’를 바탕으로 대화 격률이

3 북한의 정치가. 김일성의 장남으로 태어나 1974년 후계자로 확정되었고, 1994년 김일성이 사망한 뒤 권력을 승계하였다. 이후 17년 동안 국방위원회 위원장, 조선노동당 총비서,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 정치국 상무위원, 최고인민회의 제10기 대의원 등의 공식 직함을 가진 북한 최고 실력자로 군림하다가 2011년 12월 17일 사망하였다(두산백과).

4 이 글에서는 새로운 예를 만들어 제시하는 대신 어느 정도 검증되었다고 판단되는 기존의 논의들에서 제시되었던 예를 중심으로 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위반된 대화에서 나타나는 함축 의미 추론 과정에 대해 살펴보기로 한다.

1) 질의 격률 위반

먼저 질의 격률을 위반한 경우에 대해 논의하기로 한다.

(10) 가. 테헤란은 터키에 있지요, 선생님?

나. 그리고 아마 런던은 미국에 있을 거다(이익환 외 공역 1993: 122).

(10가)는 테헤란이 이란의 수도라는 사실을 모른 학생이 테헤란을 터키의 수도로 잘못 이야기 한 경우이다. 다만 만일 선생님이 (10가)에 대해 격률을 위반하지 않고 대화를 이어 간다면 ‘테헤란은 터키의 수도가 아니고 이란의 수도다’와 같이 발화하였어야 한다. 그렇지 않고 (10나)와 같이 발화하였다면 ‘거짓이라고 믿는 것은 말하지 말라’는 ‘질의 격률’을 위반하게 된다.⁵ 왜냐하면 발화 주체인 선생님은 ‘런던’이 영국의 수도임을 알고 있기 때문이다. 즉 알고 있으면서 틀리게 이야기하였기 때문에 ‘질의 격률’을 위반한 경우라는 것이다.

다만 이처럼 발화가 격률을 위반한 경우 화자의 의도를 파악하기 위해 숨겨진 함축 의미를 추론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먼저 (10나) 발화의 의미 속성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

(11) 런던은 미국에 있다.

런던은 미국에 있다. → 화자와 청자가 공유하는 발화 표현 의미(사실이 아니다).⁶

5 이 경우 (10나)의 대답이 (10가)의 질문에 대한 직접적인 대답이 아니라는 점에서 관련성의 격률을 위반한 것으로 볼 수도 있다.

6 만일 이 경우 (10가)의 화자가 런던이 영국의 수도라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할 경우 즉 화자와 청자가 의미를 공유하지 못하는 경우 함축 의미 추론은 불가하게 된다.

‘런던은 미국에 있다’가 가지는 (11)의 의미를 화자와 청자가 공유하고 있으면 즉 (10가)의 화자가 ‘런던’이 영국의 수도라는 사실을 알고 있다면 (10가)의 화자는 (10나)의 발화가 틀렸다는 사실을 인지하게 되고 이를 통해 자신의 발화가 잘못 되었음을 알게 된다. 즉 (10나)에서 추론된 함축 의미인 ‘사실이 아니다, 거짓이다’를 통해 (10나) 화자의 발화 의도를 이해하게 된다. 따라서 이 역시 앞서 제시 했던 함축 의미 추론 원리의 과정을 통해 함축 의미가 추론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경우라고 하겠다.

(12) [바둑을 두고 있는, 실제로는 이창호가 아닌 사람을 보고]

가. 저 사람 바둑 잘 두네.

나. 재는 이창호야(최재웅 2009: 123).

(12가)에 대해 (12나)와 같이 대화를 이어가는 경우 ‘질의 격률’을 위반하였다고 할 수 있다. (12나)가 ‘질의 격률’을 위반하였다고 보는 이유는 대화의 전제가 실제로는 ‘이창호가 아닌 사람을 보고’이기 때문이다. 즉 이창호가 아닌 사람을 보고 ‘재는 이창호야’라고 이야기하였기 때문에 사실이 아니어서 이 역시 (10나)와 마찬가지로 ‘거짓이라고 믿는 것은 말하지 말라’라는 ‘질의 격률’을 위반한 경우라고 할 수 있다. 이처럼 격률을 위반한 경우 앞서의 논의들과 마찬가지로 함축 의미를 추론해야 한다. (12나)가 가지는 함축 의미를 추론하기 위해 먼저 (12나)의 의미 속성에 살펴보기로 한다.

(13) 재는 이창호다.

① 저 사람은 1975년에 태어난 바둑을 잘 두는 사람이다. → 화자와 청자가 공유하는 발화 표현 의미(사실이 아니다.)

② 저 사람은 이창호처럼 바둑을 잘 둔다. → 화자와 청자가 공유하는 발화 표현 의미

(12가, 나)의 화자는 (13)의 의미 속성을 공유하고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대화

에 등장하는 인물이 ‘이창호’가 아니라는 사실을 서로 알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2나)에서 ‘재는 이창호야’라고 발화한 것은 잘못된 표현이다. 따라서 (12나)의 발화는 ‘사실이 아니다’, 즉 ‘거짓말’이라는 의미를 추론할 수 있다. 다만 (12나)에서 확인된 ‘사실이 아니다’라는 의미는 앞선 발화 (12가)를 통해 ‘저 사람은 이창호처럼 바둑을 잘 둔다’라는 ②의 의미로 해석되어야 한다. 다시 말해 바둑을 잘 두는 사람에 대해 이야기하는 상황에서 (12나)와 같이 ‘사실이 아닌 그러면서도 (12가)와 의미적 상관성’을 가진 발화를 한다는 것은 발화 내용이 사실은 아니지만 바둑을 잘 두는 사람과 대화의 대상을 일치시키는 표현을 통해 (12가)에서 대상으로 지목했던 사람이 바둑을 잘 둔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다는 것이다.

(14) 가. 여보, 나에 대해 어떻게 생각해?

나. 당신은 내 햇빛이야, 오직 나만의 햇빛(윤성규 2007: 181).

(14나)는 발화 그 자체만으로도 거짓이다. 즉 ‘질의 격률’을 위반하고 있다.⁷ 이는 사람은 절대 ‘햇빛’이 될 수 없다는 일반적인 상식으로도 그렇다고 할 수 있다. 다만 일반적인 대화나 문학 작품에서 (14나)와 같은 은유적인 표현들이 많이 나타난다는 점에서 이 대화에서 확인되는 함축 의미 추론 과정에 대해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앞서 언급했던 것처럼 (14나)는 일반적인 상식을 기준으로 해서도 ‘질의 격률’을 위반한 경우이고 (14가)와 관련지어서도 ‘질의 격률’을 위반한 경우라고 하겠다. 그러면 먼저 이 발화를 통해 나타나는 함축 의미를 추론하기 위해 (14나)의 의미 속성에 대해 살펴보기로 한다.

(15) 당신은 햇빛이다.

7 이 경우 (14나)의 대답이 (14가)의 질문과 의미적 상관성이 크지 않아 관련성의 격률을 위반한 것으로 볼 수도 있다.

- ① 당신은 내 해의 빛이다.⁸ → 화자와 청자가 공유하는 일반적 의미(사실이 아니다.)
- ② 당신은 따뜻하다, 당신은 나를 존재하게 한다, 당신은 내 길을 밝게 비추 준다 등. → 화자와 청자가 공유하는 의미

(15) ①은 (14나)가 사실이 아님을 의미한다. 다만 (15) ①이 가지는 이러한 의미는 (14나)에 대한 적절한 함축 의미라고 할 수 없다. 이는 앞선 대화 즉 (14가)와 의미적 상관성을 통해 서도 확인되는데 나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나는 질문에 사실이 아니라고 대답하는 것은 적절한 대답이 아니라는 것이다. 이에 대해 (15) ②는 ‘햇빛’이 가지는 어휘 속성을 통해 추론할 수 있는 의미로 (14가)와 적절한 의미적 상관성을 가진다. 즉 이 대화에서 (14나)의 화자는 ‘햇빛’을 (15) ②와 같은 의미로 사용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지금까지 ‘질의 격률’을 위반한 대화에서 나타나는 함축 의미 추론 과정에 대해 살펴보았다. 다음은 ‘관련성의 격률’을 위반한 경우 나타나는 함축 의미에 대해 살펴보기로 한다.

2) 관련성의 격률 위반

- (16) 가. 김과장은 오늘 왜 그 난리야?
 나. 오늘 날씨 참 좋지? (최재웅 2009: 121)

(16나)의 발화는 (16가)의 질문과 관련이 없다. 즉 김과장이 오늘 난리친 이유를 묻는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 (16나)는 적절하지 않다는 것이다. 전형적으로 ‘관련성의 격률’을 위반한 경우이다. 이처럼 대화 관련성이 낮은 발화의 경우 일반적으로 질문자는 자신의 질문을 잘못 이해하였다고 판단하기 쉽다. 그래서 이런 대화는 많은 경우 대화 실패로 이어지게 된다. 그러나 (16나)가 (16가)의 질문에 대

8 표준국어대사전(<http://stdweb2.korean.go.kr/search/View.jsp>)

해 대답하겠다는 협력 의지를 가지고 있는 경우라면, 즉 협력 원칙은 준수하면서 ‘관련성의 격률’만 위반한 경우라면 (16나) 발화를 통해 함축 의미를 추론해야 한다. 이를 위해 먼저 (16나)의 의미 속성에 대해 살펴보기로 한다.

(17) 날씨가 좋다

기상 상태가 좋다 → 화자와 청자가 공유하는 의미

(17)은 오늘의 기상 상태가 좋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따라서 김과장이 오늘 난리친 이유와는 상관이 없다. 다만 이처럼 대화관련성이 낮은 발화를 한 이유를 찾아야 하는데 먼저 생각해볼 수 있는 것은 대화의 화제를 바꾸려는 의도를 가지고 한 발화라고 보는 것이다. 즉 무슨 이유인지는 모르겠지만 김과장이 난리친 이유에 대해 말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어서 대화의 화제를 그날의 날씨로 바꾸려 한다는 화자의 의도를 추론해볼 수 있다는 것이다. 다만 갑자기 날씨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은 화자가 정말 날씨에 갑자기 관심이 생겨서 이야기한 것이라기 보다는 화제를 급하게 바꾸어야 하는데 가장 일상적인 화제인 ‘날씨’를 떠올렸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16나)의 화자가 화제를 ‘날씨’로 바꾸었다고 해서 이어지는 대화의 화제가 ‘날씨’가 될 가능성은 낮다는 것이다. 이는 (16나)에 이어질 수 있는 (16가) 화자의 발화를 상상해볼 때 ‘갑자기 날씨 이야기는 왜 해?’ 정도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도 그렇다. 따라서 이 경우 (16나)의 화자가 관련성의 격률을 위반하면서 전달하려고 했던 발화 의도는 (16가)의 질문에 대해 대답하지 않겠다. 즉 대화 회피일 가능성이 높다.

(18) 가. 빌 어디 있니?

나. 수의 집 밖에 노란 자동차가 있더라(이익환 외 공역 1993: 113).

(18나)는 (18가)의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 적절하지 않다. 이 경우는 오히려 ‘빌’이 어디에 있는지 구체적인 장소로 대답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즉 (18나)의 화자는 정상적인 대화를 하기가 어려운 어떤 이유 때문에 (18가)의 질문과 관련 없는 발

화를 하고 있어 ‘관련성의 격률’을 위반하고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다시 말해 (18가)의 질문에 직접적으로 대답할 수 없는 상황, 이를테면 대화를 하는 상황에 ‘빌’의 아버지가 옆에 있어서 직접적으로 ‘빌’이 어디에 있는지를 이야기하기 어려운 상황 때문에 직접적인 대답보다는 함축 의미를 가진 그러면서도 직접적인 대답 형식이 아닌 발화로 대답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다만 이처럼 관련성의 격률을 위반한 경우 앞서의 논의처럼 화자의 의도를 반영한 함축 의미를 추론해야 한다. 이를 위해 먼저 (18나)의 의미 속성에 대해 살펴보기로 한다.

(19) 수의 집 밖에 노란 자동차가 있다.

- ① 수의 집 밖에 노란색의 자동차가 있다. → 화자와 청자가 공유하는 일반적 의미
- ② 수의 집 밖에 빌의 자동차가 있다. → 화자와 청자가 공유하는 특수한 의미

‘수의 집 밖에 노란 자동차가 있다.’는 (19)의 두 의미 모두로 추론될 수 있다. 다만 (19) ①의 의미로 추론될 경우 (18가)와의 의미적 상관성이 낮아 적절하게 해석되기 어렵다. 따라서 (18가)와 의미적 상관성이 높은 (19) ②의 의미로 추론되어야 한다. 즉 ‘빌’이 ‘수’의 집에 있다는 의미로 추론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20) 가. 여기 있는 고기 못 봤어요?

나. 저 개가 참 행복해보입니다(이익환 외 공역 1993: 143).

(20나)는 (20가)의 질문에 대한 답으로 적절하지 않다. 즉 의미적 상관성이 낮아 적절한 대답이라고 하기 어렵다. 어떤 면에서는 앞서 논의했던 (18가)와 (18나)가 가지는 의미적 상관성보다도 긴밀하지 못하다고 할 수 있다. 이 경우 (20가)의 화자는 (20나)의 발화를 자신의 질문에 대한 적절한 대답이라고 판단하지 않고 (20나)의 화자가 자신의 질문에 대해 답을 회피하는 것으로 받아들일 여지가 더

크다.⁹ 다만 (20나)의 화자가 자신의 질문에 대해 협력하겠다는 의도를 가지고 대답한 경우라고 판단하면 (20나)의 발화에서 함축 의미를 추론하려는 시도가 필요하게 된다.

(21) 개가 행복하다.

- ① 개가 맛있는 음식을 먹었다. → 화자와 청자가 공유하는 의미
- ② 개가 마음껏 뛰놀았다. → 화자와 청자가 공유하는 의미
- ③ 개가 행복할 수 있는 그 외 상황들 → 화자와 청자가 공유하는 의미

(21)의 ①, ②, ③ 모두 함축 의미로 추론될 수 있다. 즉 개가 행복할 수 있는 모든 상황 의미가 함축 의미로 추론될 수 있다. 다만 이들 의미 중 (20나)가 가지는 함축 의미로 해석되기 위해서는 (20가)와의 의미적 상관성이 긴밀해야 한다. 그런데 (20가)에서 화자는 고기가 어디 있는지를 묻고 있다. 따라서 (20나)의 함축 의미는 함축 의미 추론 원리에 따라 (21)의 여러 의미 중 첫째 의미 즉 개가 맛있는 음식(고기)를 먹었다고 추론될 수 있다.

(22) 가. 내 프린터 좀 봐 줄 수 있어? 작동을 안 해.

나. 내가 11시에 약속이 있어(소상호 1998: 263).

(22나)는 (22가)에 대한 적절한 대답이라고 하기 어렵다. 이 경우 (22가)의 질문에 대한 적절한 대답이라면 ‘프린터 봐 줄 수 있어.’ 혹은 ‘프린터 봐 줄 수 없어.’와 같은 형식으로 대답하여야 한다. 따라서 (22나)의 화자는 (22가)의 질문과 관련 없는 대답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관련성의 격률’을 위반했다고 할 수 있다. 다만 (22나)의 화자가 (22가)의 질문에 대해 협력하겠다는 의도를 가지고 있다고 대답한 경우라고 전제하고 숨겨진 함축 의미를 추론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22나)의 의미 속성에 대해 살펴보기로 한다.

9 이 경우 (20가)의 화자는 ‘무슨 말이야? 여기 있는 고기 못 봤냐고?’와 같이 대화를 이어갈 가능성이 높다.

(23) 약속이 있다.

① 약속이 있다. → 화자와 청자가 공유하는 의미

② 약속이 있는 시간에 다른 일을 하기 어렵다. → 화자와 청자가 공유하는 의미

(23)은 ①과 ② 두 의미를 가진다. 따라서 두 의미 모두 함축 의미로 추론될 수 있다. 다만 (23) ①은 (22가)와의 의미적 상관성이 너무 낮아 이렇게 해석될 수 있는 여지는 매우 낮다. 이에 대해 (23) ②는 (22가)와의 의미적 상관성이 높아서 적절한 함축 의미의 자격을 가진다. 즉 프린터를 봐 줄 수 있는나는 질문에 약속이 있어서 봐 주기 어렵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어 적절한 함축 의미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지금까지 관련성의 격률을 위반하여 나타날 수 있는 함축 의미에 대해 살펴보았다. 다음은 양의 격률을 위반하여 나타날 수 있는 함축 의미에 대해 살펴보기로 한다.

3) 양의 격률 위반

(24) 가. 박스 안에 있던 캔디 봤어?

나. 아침에 동생이 네 방에 있는 걸 보았어(윤성규 2007: 180).

(24나)는 (24가)의 질문에 대한 답으로 충분하지 않다. 즉 제공해야 할 정보는 제공해야 한다는 첫 번째 ‘양의 격률’을 위반한 경우라고 하겠다.¹⁰ 이처럼 ‘양의 격률’을 위반한 경우 역시 협력 원칙을 준수하고 있다면 화자의 의도를 파악하기 위해 함축 의미를 추론해야 한다.

(25) 동생이 방에 있다.

10 이 경우 (24나)의 대답이 (24가)의 질문과 의미적 상관성이 크지 않아 관련성의 격률을 위반한 것으로 볼 수도 있다.

- ① 동생이 방에 위치하고 있다. → 화자와 청자가 공유하는 의미
- ② 동생이 방에서 무언가를 하고 있다. → 화자와 청자가 공유하는 의미

(25)는 두 의미로 해석될 수 있다. 즉 (25) ①의 의미가 기본 의미이기는 하지만 (25) ②의 의미로 해석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두 의미 중 (24나)의 함축 의미를 추론하기 위해 (24가)와의 의미적 상관성을 고려해야 하는데 이처럼 (24가)와의 의미적 상관성을 고려하면 (25) ①보다 ②가 함축 의미일 가능성이 더 높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즉 박스 안에 있는 캔디를 동생이 가져갔다는 의미로 해석하는 것이 더 대화 맥락 상 더 적절하다는 것이다.

(26) 가. 철수 어디 사니?

나. 서울 어딘가에 살아(윤성규 2007: 181).

(26나)는 (26가)의 질문에 대한 적절한 대답이라고 하기 어렵다. 이 역시 필요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는 ‘양의 격률’을 위반하고 있기 때문이다. 즉 철수가 어디에 사는지를 묻는 질문에 대해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대답이라면 ‘철수는 서울에 있는 자기 학교 앞에서 살아’와 같이 철수가 사는 곳에 대한 정보를 보다 구체적으로 제공해야 한다. 다만 이 역시 협력 원칙을 준수하고 있다는 전제 하에 함축 의미를 추론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26나)의 의미 속성에 대해 살펴보기로 한다.

(27) 어딘가에 살다.

사는 곳을 구체적으로 알지 못한다. → 화자와 청자가 공유하는 의미

(27)은 ‘어딘가에 살다’가 ‘사는 곳을 알지 못한다’라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따라서 추론할 수 있는 함축 의미도 이 하나로 제한될 수밖에 없다. 다만 이렇게 제한적으로 추론된 함축 의미라 하더라도 (26가)와 의미적 상관성을 가져야 하는데 철수가 어디에 사는지를 묻는 질문에 ‘철수가 사는 곳을 구체적으

로 알지 못한다’라는 함축 의미로 대답하는 것은 적절하다고 할 수 있다.

지금까지 양의 격률을 위반하였을 때 추론될 수 있는 함축 의미에 대해 살펴보았다. 다음은 태도의 격률을 위반한 경우 나타날 수 있는 함축 의미에 대해 살펴보기로 한다.

4) 태도의 격률 위반

(28) 가. 싱어 양이 노래를 불렀어?

나. 싱어 양은 리골레토 아리아의 악보와 거의 일치하는 소리를 냈다. (이익환 외 공역 1993: 125 변형)

(28나)는 무엇을 말하기 위한 발화인지 그 발화 의도를 쉽게 찾을 수 없다. 즉 모호하게 이야기하지 말라는 태도의 격률을 위반한 경우라고 할 수 있다. 이처럼 태도의 격률을 위반한 경우 역시 화자의 발화 의도를 포함하고 있는 함축 의미를 추론해야 한다.

(29) 아리아 악보와 일치하는 소리를 내다.

아리아를 불렀다. → 화자와 청자가 공유하는 의미

(29)는 ‘아리아 악보와 일치하는 소리를 내다’가 가질 수 있는 함축 의미가 하나로 제한된다는 것을 보여준다. 다만 이렇게 하나로 제한된 함축 의미라 하더라도 (28가)와 의미적 상관성을 가지는지를 확인해야 하는데 싱어 양이 노래를 불렀는지를 묻는 (28가)의 질문에 아리아를 불렀다라는 함축 의미를 가진 (28나)의 대답은 적절한 의미적 상관성을 가진다고 판단된다.

4. 말하기, 듣기 교육에 대한 적용 가능성

한국어 말하기, 듣기 교육에 있어 한국어 모어 화자들의 실제 대화를 이해하는 것은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다만 한국어 모어 화자들의 경우 다음과 같이 일상 대화에서 질문에 대해 직접적으로 대답하지 않고 격률을 위반한 발화로 대답하는 경우들이 많다.

(30) 가. 내일 같이 영화 보러 갈래?

나. 요즘 제출해야 할 과제가 너무 많아.

(30가)의 질문에 ‘응, 내일 같이 영화 보러 가자.’ 혹은 ‘아니, 내일 같이 영화 보러 갈 수 없어.’와 같이 분명하게 대답하는 경우도 있지만 (30나)와 같이 직접적인 상관성이 없는 발화로 대답하는 경우들도 많다. 다문화 자녀를 포함한 한국어 학습자들의 경우 이러한 대화를 이해하려면 대답 속에 숨어 있는 화자의 발화 의도를 파악하는 것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 글에서 제시하고 있는 ‘함축 의미 추론 원리’를 적용하여 화자의 발화 의도를 파악하는 방법에 대해 교육하는 것은 실제적인 한국어 대화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판단된다. 다만 이처럼 ‘함축 의미 추론 원리’를 반영하여 교육함에 있어 이론적인 설명보다는 구체적인 현상을 통해 이해할 수 있도록 교육할 필요가 있다.

(30)을 예로 들면 먼저 교사는 학생들에게 (30나)의 대답이 (30가)의 질문에 대한 적절한 대답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하게 이해시킬 필요가 있다. 다음으로 ‘요즘 제출해야 할 과제가 너무 많다’라는 표현이 가지는 의미들에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학생들이 스스로 찾을 수 있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요즘 수업을 많이 듣는다, 과제를 준비할 시간이 필요하다, 과제를 해야 해서 다른 일을 할 수 없다 등’의 의미들이 찾아지게 된다. 다음으로 이렇게 찾아진 의미들 중 (30가)의 질문과 관계가 있는 의미(과제를 해야 해서 다른 일을 할 수 없다. 따라서 네가 제안한 영화를 보러 갈 시간이 없다.)를 찾게 하고 이렇게 찾아진 의미를

통해 (30나)의 발화 의도를 알아내게 교육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정리하면, 먼저 격률을 위반한 대화쌍을 제시하고, 다음으로 격률을 위반한 대답에서 나타날 수 있는 다양한 의미를 추론하게 한 후 찾아진 의미들 중 질문과 상관성이 있는 의미를 찾아 화자의 발화 의도를 파악하게 교육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활동을 통해 학습자들은 질문과 상관성이 없어 보이는 발화 속에 숨겨진 화자의 발화 의도를 찾아갈 수 있게 된다. 다만 이러한 교육은 중급 이상의 한국어 학습자들에게 적합할 것으로 판단된다.

5. 결론

이 글에서는 화자와 청자 간의 원활한 의사소통에 있어 화자의 숨은 의도를 추론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전제 하에 그 숨은 의도인 함축 의미를 추론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 논의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논의가 한국의 언어 문화적인 특성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다문화 가정 자녀들을 대상으로 한 한국어 말하기, 듣기 교육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보았다.

이 글에서의 논의를 정리하면, 먼저 함축 의미를 추론하기 위해 그라이스(1975)의 협력 원칙 및 네 가지 대화 격률에 대해 살펴보았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함축 의미 추론 원리’를 제시하였다.

※ 함축 의미 추론 원리

함축 의미는 발화 표현에 대해 화자와 청자가 공유하는 정보 중 대화 맥락과의 상관성에 의해 추론된다.

그리고 함축 의미 추론 원리가 타당함을 구체적인 예를 통해 확인하였다. 다음으로 제시한 함축 의미 추론 원리를 네 개의 대화 격률(‘질의 격률’, ‘관련성의 격률’, ‘양의 격률’, ‘태도의 격률’)을 위반한 각각의 예에 적용하여 화자의 발화 의도인 함축 의미를 추론하는 과정에 대해 살펴보았다.

논의 과정을 통해 화자의 발화 의도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합리적으로 함축 의미를 추론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었다. 다음으로 이러한 논의가 말하기, 듣기 교육에 어떻게 효과적으로 적용될 수 있을지에 대해 논의하였다.

교신: 우창현(대구대학교 국제한국어교육과 부교수)(wuch@naver.com, 전화: 053-850-6877)

Correspondence: Woo, ChangHyun(associate professor, The Department of International Korean Education, Daegu University)(wuch@naver.com, phone: 053-850-6877)

2017.11.20 접수, 2017.11.21 심사, 2017.12.05 게재확정

참고문헌

- 소상호, 1998, 관련성 원리와 대화함축, 영미어문학 52, 한국영미어문학회, 257-276.
- 윤성규, 2007, 대화격률과 함축에 관한 연구, 영미연구 17, 한국외국어대학교 영미연구소, 173-194.
- 이성범, 1999, 언어와 의미, 태학사.
- 이성범, 2002, 추론의 화용론, 한국문화사.
- 이성범, 2012, 화용론 연구의 거시적 관점. 소통.
- 이성범, 2015, 소통의 화용론, 한국문화사.
- 이익환·권경원 공역, 1993, 화용론, 한신문화사.(Levinson, S.(1983), Pragmatics, Cambridge University Press.)
- 임지원, 2005, 광고어의 함축과 그 추론 과정, 語文研究 49, 어문연구학회, 177-209.
- 최재용, 2009, 격률의 의도적 위반이 유발하는 함축의 귀추법적 추론, 언어연구 26-3, 경희대학교 언어정보연구소, 111-127.
- Austin, I. L., 1962, How to Do Things With Words, OXFORD: Clarendon Press.
- Grice, H. P., 1975, Logic and Conversation, In P. Cole and J. Morgan, eds, Syntax and Semantics, Vol. 3. Academic Press. New York.
- Levinson, S. C., 2000, Presumptive Meanings: The Theory of Generalized Conversational Implicature, Cambridge, Massachusetts: MIT Press.
- 두산백과, 2017, http://www.doopedia.co.kr/doopedia/master/master.do?_method=view&MAS_IDX=101013000779584
- 국립국어원, 2017, <http://stdweb2.korean.go.kr/search/View.jsp>

A Study on the Principle of Inference to the Implication Meaning for Effective Multi-cultural Child Speaking Education

Woo ChangHyun*

Abstract In this paper, I discussed the concrete method of inferring the meaning of the implicit intention, on the premise that it is more important to infer the speaker's hidden intention in the smooth communication between the speaker and the listener. And these discussions could be helpful for Korean speaking and listening education for foreign and multi-cultural children who do not understand Korean language and cultural characteristics. To summarize the discussion in this article, we first looked at the cooperation principles of Grice (1975) and the four conversation rules to infer connotations. Based on this, 'implication semantics principle' is presented. And I confirmed the validity of the principle of implicit semantic inference through specific examples. The implication principle of the implication semantics is applied to each case of violation of four conversation rules ('query rule', 'relevance rule', 'positive rule', 'attitude rule'), The process of inferring the implication implications was discussed. It was once again confirmed that it is important to infer connotations meaningfully in order to grasp the speaker's intention to speak through this argument process.

Keywords Multi-culturalism, Implication, Inference, Discretion, Cooperation principle

* Daegu University, Associate Professor, The Department of International Korean Education, wuch@naver.com